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다양한 손가락 모양으로 인증샷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투표 대기줄 100m... 지지후보 인증샷 행렬

오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사전투표가 4일부터 광주·전남지역 392곳 등 전국 읍·면·동에 1개씩 3507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5일까지 계속되는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광주지역 투표소 주변은 투표를 마친 뒤 출근하려는 유권자들이 한때 길다란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100m 이상 길게 늘어선 유권자 대기 행렬은 이번 대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국민의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 민주 박영선 총장로서 한 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호남 정치 1번지’ 광주 동구 총장로를 찾아 투표했다.

그는 이날 광주시 동구 총장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길 수 있는 후보, 될 수 있는 후보에 표를 몰아 호남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을 남겨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국민적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의미 있고 역사적인 선거라 생각해 투표하는데 굉장히 떨렸다”고 밝혔다.

## 국민의당 의원들 투표 행렬

국민의당 광주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지역구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소중히 한 표를 행사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이자 광주 상임선대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광산구 첨단2동 라인2차 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주선 국회의장은 이날 학운동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사전투표했으며 장병완 선대위 중앙총괄본부장은 남구 주월1동 푸른길도서관 2층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송기석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서구 전남중학교에서 부인 임미란씨와 사전투표했으며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인 김경진 의원도 북구 두암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최경환

## 대선 첫 사전투표 열기 후끈

출근 전 투표... 투표소 인근 교통체증  
출국 전 투표... 공항 투표소 북적북적  
오늘까지 광주·전남 392곳 등서 계속



제19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4일 광주시 동구 총장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투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부인 이선자씨와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북구 운암3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도 목포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도 4일 19대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시항에 머무는 미수습자 가족 10명은 이날 오전 목포시 북항동행복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가족들은 목포시항에서 목포시선관위가 지원한 차량으로 5km가량 떨어진 투표소까지 이동했다.

가족들은 투표소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목포시항 북문 앞에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하

고 미수습자 수습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색 작업을 지켜보는 세월호 유가족 20여 명도 이날 오후 북항동행복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목포시선관위는 목포시항에서 투표소까지 총 8차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 대통령 뽑는데 교통체증 쯤이야

4일 광주시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 주변은 한때 100m 이상 늘어선 유권자들로 북적대면서 교통체증까지 빚어졌다. 구청 앞 사거리는 유권자들이 몰고 온 차량이 50m 이상 기다 서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큰 혼잡을 빚었다.

유권자 박모(45)씨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이날 투표한 한 표가 훗날 내 자식들에게 좋은 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인천공항 투표 대기에 장사진

인천국제공항 3층 F 체킨인 카운터 주변은 사전투표를 하고 출국하려는 유권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김기홍씨(47)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대기 행렬이 길었다. 작년 사전투표 때는 줄이 길어봐야 10m 남짓이었었는데, 이날 이렇게 많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처음 줄을 선 순간부터 사전투표를 마무리하기까지는 평균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사전투표소에는 총 11개의 기표소가 운용 중인데, 유권자 대다수는 대기 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행객 김모(31)씨는 “이날 오전 11시 출국예정인데, 사전투표를 하고자 4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했다. 50분가량 기다린 뒤 투표를 마쳤다”고 말했다.

## 인증샷 올리면 500만원 로또

이번 대선 사전투표를 향한 열기는 온라인에서도 고조란히 드러났다.

사상 첫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증샷이 끊이지 않고 올라왔다.

선거법 개정으로 특정 기호를 연상시키는 인증샷이 허용되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V자, 오케이 사인, 모두 펼친 손가락 등을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인증샷이 계속되는 게 시됐다.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으로 500만원의 성금을 주는 ‘국민투표로또’에 참여한 사람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6만명에 육박했다.

커피숍에서는 할인쿠폰이나 터치커피 원액과 쿠키 등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예코백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한 치과에서는 무료로 스케일링해주는 고고했다.

/이종환·김현영·전은재 기자 golee@kwangju.co.kr

# 높은 사전 투표율을 누가 웃나

文 “젊은층 선호...대세론 탄력” 고무  
安 “광주·전남 중장년 높은 참여율 도움”

호남 표심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측은 제19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호남의 높은 투표율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는 등 축격을 굳 두세우고 있다.

첫날 사전투표율이 광주 15.66%, 전남 16.76%, 전북 15.06%로, 지역 유권자 10명 중 이미 2명 가까이 투표를 마친 셈인데, 5일이나 남은 선거운동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지후보를 결정한 이들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지역의 높은 투표율이 젊은 층의 투표 참여 때문으로 보고 20~30대 지지도가 높은 문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어린이날 연휴에 앞서 미리 투표하고 가족과 휴가를 즐기려는 30~40대도 사전투표소에 많이 나와 역시 문 후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선거 분위기가 진보 대 보수 대립구도로 흐르면서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사전투표 참여자들의 성향도 문 후보 지지도가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교체 의지가 높은 20~30대 젊은층의 투표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 더 두고 볼 것 없다는 이들의 인식이 사전투표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장년층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의당도 높은 사전투표율이 그다지 젊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사전투표소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연령층이 알려진 것보다 그다지 낮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전투표를 제고에 역시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 특성상 정권교체 프레임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보 대 보수라는 낡은 이념 구도의 형성도 오히려 안 후보 결집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투표소 현장에 가보면 막연히 젊은 층이 많이 올 것 같던 생각이 사라진다”며 “기존의 정치 구도에 염증을 느낀 안 후보 지지층이 사전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사전투표 ‘기선 잡기’ 경쟁

민주, 역사·공항 공략  
국민의당 지도부 총출동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각 정당이 투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총동원력을 내했다.

각 정당(이하 기호순)은 소속 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자 가족까지 나서 ‘붙임’에 나섰다. 사전투표를 통해 기선을 제압하고 지지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우선 각 당 후보들은 대선 당일인 9일 투표를 기약한 가운데 당내 주요인사들이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하며 ‘기선 잡기’ 경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함글연휴’ 날들이객들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역사나 공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집중 공략했다.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역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인근의 남대문시장에서 유세전을 펼쳤다.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이천수 씨와 인천공항을 찾았다. 대선 경선과정에서 경쟁을 벌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오전부터 일찌감치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하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현지 단체장으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어 동행한 배우자들이 대신 ‘엄지척’을 하며 ‘인증샷’을 찍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인 이날 아침 일찍 자택 인근의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도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고, 주승용 공동선대위원장도 여수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김부성 공동 선대위원장이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 봉래제1동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정병국·주호영 선대위원장도 서울 여의도 주민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오신환 당 대변인 역시 지역구인 서울 관악구 미성동의 자치회관에서 사전투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들 이우균 씨는 후보의 상징색인 노란색 티셔츠 차림으로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투표 뒤 다섯 손가락을 다 펼친 포즈로 사진을 찍으며 어머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시: 2017. 5. 9(화) 오후7시
- 장소: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상: 누구나 (선착순○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시: 2017. 5. 16(화) 오후7시
- 장소: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사주+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가업승계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맥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적령(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 건물2,000㎡ 매 32억원
-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 건물2,100㎡ 매 36억원
- 치명동 5층 상가건물 대 360㎡ 건물 1,150㎡ 매 25억원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8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 (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임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 (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임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점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점 990㎡ 5억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9100㎡ 매45억 (물류창고, 아적장 적합)
- 광산구 대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동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 태광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 주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답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3,070㎡ 매6.5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마곡동 상가분양권 1층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 문의 010-2572-4663